



전북대 민주화 박사, 미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민주화 박사(전기공학과 2022년 2월 졸업·지도교수 서용석)가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인 IEEE Energy Conversion Congress & Expo 2022(EECC 2022)에서 산업응용 논문지 산업전력변환분과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융합전공생들, 한국고전 활용 공모전 수상

전주대학교 스토리텔러 융합전공 학생들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주최한 제14회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원여성새일센터, 독거 어르신 정리수납 봉사

남원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지양근)는 지난 21일 직업교육훈련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독거 어르신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대, 하버드대·MIT와 연계 공동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 세계 무대 진출 위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전북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송철규)은 하버드와 MIT 등 세계 최고 대학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활동을 마치고 지난 20일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의공학, 신기술 등을 주제로 한 사업화 및 제품 제작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캡스톤디자인 활동도 수행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미국 하버드대학 메디컬스쿨과 MIT 등과 연계해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하버드-MIT 글로벌 캡스톤디자인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다.

MIT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 세계 무대 진출에 대한 꿈을 키웠고 실험실과 기업을 오가며 미국 대학 생활과 교육 환경을 체험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종재 학생(박사과정 재학)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해외 무대로의 진출과 취업을 모색해왔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며 "꿈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LINC 3.0 사업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철규 단장은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모습이 대단하고 뿌듯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도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 무풍·적상면민의 날 개최... 주민 화합 결속 다져

무주군 무풍면(면장 김삼운)과 적상면(면장 이현우)이 잇따라 면민의 날 행사를 갖고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지난 21일 열린 사과 향기 가득한 제33회 사과골 무풍면민의 날은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면민과 출향인 초청자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화합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명랑게임에 이어 2부 기념식, 3부, 특별공연과 노래자랑, 경품추첨, 부대행사로 순서로 진행됐다. 또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주민들에 대해 면민의 장과 군수 표창 수여가 있었다.

30분 추수감사제를 시작으로 풍물패 공연과 난타공연, 전자현악 공연이 식전행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을 위한 향토공익장을 전현석씨가 산업근로장을, 강래구씨가 문화체육장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송연호 치목이장, 전영식 적상면체육장, 김정수 적상면 부녀회장이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군수표창을 수상했다.

하유미의 김진문씨와 상가마을의 박영근씨, 치목마을의 손순민씨,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김도원 주무관이 적상면발전회의가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익산교육문화회관, 허여성 작가와 만남 운영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은 2022년 하반기 테마와 전사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테마와 전사가 있는 작가와의 만남은 매월 주제에 맞는 도서 전시와 작가 강연 등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10월은 '살아온 지구, 살아갈 환경'이란 주제로 도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결론

▲김현영(주수신성건설, 김광현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장·최영애계 장남)·이하연(덕진보건의료, 이영구·이숙씨 장녀)은 일사: 29일(토) 오전 10시 50분, 장소: 아름다운컨벤션 2층 컨벤션홀



고창경찰, '제77회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고영환)는 21일 오전 대강당에서 경찰관과 협력단체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탁정연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장이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축전을 보내왔다.

이번 행사는 경찰총보 동영상 상영, 대통령 치사를 낭독하고, 교통관리계장 경감 허민욱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정보안전보안계장 경위 김재순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또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조남열,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장 유승운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국장 김진규가 전북청장 감사장을, 고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상담사 이진희가 지체경찰위원장 감사장을 수상하는 등 경찰업무에 협조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고영환 경찰서장은 "제77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항상 경찰을 응원해주는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시,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전북도 공모 선정

남원시는 전라북도 주관 2023년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에 항공동 일대 '동림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9월 사업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주민동의서를 받았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심사위원회평가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예산 7,5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인 동림로는 전변을 중심으로 신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인근 남원아트센터 야간경관조성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실시

전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1일 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사내 CS(Customer Service) 강사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외부 CS 전문 강사를 통한 심화 교육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내 강사가 실무를 담당하며 직접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진행해 공감대를 이뤘다. 공단은 또 2차 심화 교육을 통해 친절 마인드의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안 마을축제, 전북도 공동체 한마당 행사와 병행

진안군 마을축제 '축제와 만나다'가 21일 마이산 북부 마인토테마공원에서 펼쳐졌다.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축제와만나다 장은 진안군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문화장터로 쉼터와 여러 문화공원이 함께하는 행사다.

코로나 대응 이후 2년여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먹거리와 생활공예 등 지역 쉼터 2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진안의 대표적 마을사업인 촌스런 마을여행 5개 팀도 함께해 진안 곳곳에서 진행되는 체험을 관광객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인석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여는 첫 행사로 보다 더 알차게 준비했다"며 "올해는 진안 군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마을민들까지 참여하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의미가 컸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리는 화합 한마당 열려

'제29회 전주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가 지난 21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각 장애인단체 관계자 전주시 거주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노찬욱) 주최로 올해 2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울려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심신 건강과 단체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을 연출했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에게 전주시장 표창과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어진 2부 체육경기에서는 팔씨름, 율리퍼프, 전자지트, 고리걸기, 불링 등의 종목이 펼쳐졌다. 마지막 3부 행사에서는 장기지팡이 및 노래자랑 등 즐거운 문화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김재훈 기자